예비 대권주자들 빅매치 시작됐다

민주당 비대위체제 전환…전대 앞으로

'빅3' 싸움에 천정배·김효석·박주선 가세

민주당이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당대회 준비에 나서면서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보선 이후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 당 상황을 관망해 온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예비 대권주자들의 사활을 건 '빅매치'가 예고되고 있다.

3일 현재 당권 경쟁은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 등 '빅3'의 싸움에 천정배·김효석·박주선 의원 등이 가세하는 6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 2년 동안 당 조직을 장악해온 정세균 전 대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재보선 참패 후유증을 극복한 뒤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2년간 자신이 대표로 있으면서 이룩한 업적을 강조하며 당권 재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전 대표는 지역위원장 장악력은 가장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재보선 패배로 대의원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조만간 춘천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대표는 '2년여 동안 반성과 고뇌 속에서 얻은 나라와 당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권에 대한 의욕보다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각오다. 2년여의 칩거로 조직력에서 다소 밀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해온 지지조직이 남아있고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일찌감치 소리소문 없이 지방을 돌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재보선 직후 경남 창녕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충북 보은에서 당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는 등 다른 대권주자보다 훨씬 전대 준비에 나선 것이다.

또 오는 4일에는 고향인 전주에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조직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조직력은 상당하다는 평이다.

다크호스로 통하는 구민주계의 대표주자인 박주선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에서 비주류 측 후보들의 의사소통 통로 역할을 자임해와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지지자들이 많은 점이 강점이다.

당 쇄신과 변화의 최적임자로 평가받는 천 의원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정치 행보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전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 의원의 최대 장점은 '진정성'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 그는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소장파 모임인 '민생모' 조직과 당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캠프 사무실을 마련한 김효석 의원도 이달 중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최대 업적인 뉴민주당플랜 홍보에 나서는 등 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이미지에 콘텐츠를 누구보다 많아 갖추고 있어 조직적인 지원이 뒤따를 경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의원이 선호하는 당 대표는?

손학규 1위·정동영 2위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대의원들 사이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는 지난 1일 실시한 민주당 전국 대의원(유효 DB수 1만1683개) 대상 차기 당 대표 선호도 ARS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포인트) 결과, 손 전 대표가 26.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18.9%), 정세균 전 대표(15.8%), 박주선 의원(15.3%) 천정배 의원(9.4%) 순이었다.

유효표본 3049명이 응답하고 1인2표제를 가정한 조사 결과(1, 2순위 통합)에서 손 전 대표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대의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끌어냈다.

구체적으로 당 대표 선호도 1순위 조사 결과는 손학규(33.0%)-정동영(20.8%)-정세균(15.6%)-박주선(13.5%)-천정배(5.3%) 순이었고 2순위 조사에서는 2위가 뒤바뀌어 손학규(18.9%)-박주선(16.3%)-정동영(15.9%)-정세균(15.3%)-천정배(13.7%) 순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합선출(49.2%)과 분리선출(45.4%) 방식이 팽팽히 맞섰다. 또 민주당 대의원들은 범야권 대통합(30.5%)을 차기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으론 인재 발굴 및 영입(17.3%), 선명한 견제 야당 건설(16.8%), 집권능력강화(15.4%), 당 정체성 확립(15.2%) 등을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대 앞두고 주목받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공정성에 정치생명 걸겠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총사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9월 새 지도부 출범 전까지 당을 끌고 가게 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그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당권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리더십을 발휘,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전대 준비기구와 세부 규칙 등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그는 비대위 체제 첫날인 3일 그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운영과 관련, "(전당대회의) 공정성에 생명을 두겠다"며 엄정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전대 과정에서 혹시라도 과거 한나라당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비대위에서 책임지고 정리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겠다"며 감시자와 조정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 "비대위는 당헌당규에는 없지만 과거에도 당이 어려울 때는 비대위를 구성해 지도부 역할을 했고 한나라당도 얼마 전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

"당원·국민이 원하는 전당대회 치를 것"

치적 해석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의 중지를 모아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장 비대위 위원 11명 중 2명은 당내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의 추천을 받아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소문제 등이 있어서 9월12일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한 뒤 "물리적으로 장소 등의 문제가 있지만 9월 중순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방식에 대해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적 의견은 말씀하지 않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당원이 바라는, 국민이 요구하는 당헌·당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엄기영 전 MBC사장 영입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훌륭한 방송인이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앵커로 우리당과도 가까운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의 여러 가지 정으로 볼 때 민주당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보이는 데 대해 "비대위는 지도부를 대신할 뿐이지 당권을 잡은 권력기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개숙인 한나라당 대표

"공공요금 인상과정 제 역할 못했다" 국민에 사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3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조정안과 관련, "이번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안에) 하반기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었다. 안 대표는 "앞으로 한나라당은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라는 각오로 언제나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친서민정책·대기업 때리기는 좌파 포퓰리즘"

김용갑, 한나라당 비판

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3일 "한나라당이 최근 친(親)서민에 올인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는 중도보다 더 좌로 간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이 서민정책특위를 구성, 과거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좌파본당식 서민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과거 좌파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복지시혜와 포퓰리즘을 하게 되면 좌파정당인 민주당과 인기영합적 좌파정책을 놓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정부가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좌파식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대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악덕기업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면 가슴이 후련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 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 기초반:30명
수업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 강 료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 특 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기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520-4243 010-9886-8964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관상 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관상 고급	8월3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사주명리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2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 부터 ~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연구원장 김경준

문의: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 · 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 한자 · 한문의 올바른 교육을 담당할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 남 · 녀 · 노 · 소(한자급수, 학력제한없음) 18세이상
■ 모집기한 :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 강 료 :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예금주 : 이종순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접 수 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건강관리협회부근)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 - 전남본부
■ 교육과정 ※중앙연수원과 동일한 교재로 명강의를 합니다.

과 정 명	교 육 과 목	개강 / 연수기간
제 11기 한자지도사 (기초한문)	· 부수해설, 시지소학 · 1,800자(상용한자)자원풀이 · 중학교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지도법 · 중학교 한문교육과정 해설	토요일반9월4일 14 : 00~18 : 00 화요일반9월7일 14 : 00~18 : 00 / 2010년9월4일~2011년2월12일(24주)
제 8기 한문지도사 2급 (기본과정)	· 추구집 · 명심보감 · 중 · 고교 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 고등학교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금요반9월3일 09 : 00~13 : 00 / 2010년9월3일~2011년 2월11일(24주)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소학 · 대학 격몽요결 · 중용	금요반9월3일 14 : 00~18 : 00 / 2010년9월3일~2011년 2월11일(24주)

한문지도사 특급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 · 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강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 · 구청 · 문화 · 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강사
- 한문학원 개설 및 한자 · 한문지도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 질주시교육청특수분야(한자 · 한문)직무연수기관 한국한자 · 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e-mail : hanja-exam@hanmail.net / FAX : 062)366-9779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 분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2010. 8. 30(월) 09:00 야간반:2010. 8. 30(월) 18:00	· 금요일 오전반:2010. 9. 3(금) 09:10 · 토요일 오전반:2010. 9. 4(토) 09:1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 기초반:주·야간반 각 30명 · 심화반:주·야간반 기존진급생	· 기초반:금·토요반 각 30명 · 심화반:금·토요반 기존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 강 료	₩ 300,000 •광주은행:074-107-004114 (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 300,000 •광주은행:148-107-307803 (예금주:광주여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국궁협회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 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기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2단계수료시)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기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530-3873~5 ▶지도교수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